

## 초등부 심사평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 글짓기 심사를 하면서 새삼 우리의 미래와 그것을 만들고 감당해나갈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갯벌 체험을 통해 소박하나마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깨달은 참가자들의 글에서 공존과 공생을 향한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고 든직했다. 무엇보다 지식과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으로 이어지는 앎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확장되는 현장을 재확인하는 기쁨이 컸다.

인천하늘 초등학교의 전가연 학생의 글은 갯벌에 사는 다양한 생물과 철새, 그리고 사람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지식이 아닌 생활과 삶에서 나온 경험을 어린이다운 소박함으로 진실하게 표현해 인천시장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김경철 학생의 글은 다양한 갯벌 생물의 특징을 잘 포착해 개성적으로 표현한 수작으로 전가연 학생의 글과 함께 최종심까지 오른 수작이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갯벌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하고 그 깨달음을 갯벌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으로 연결한 오지아, 김예은, 조은서 학생의 글, 갯벌이 우리 삶의 터전임을 실감한 박정빈, 심예은 학생의 글은 ‘영종도 갯벌사랑 나의 작은 실천’이라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좋은 글이었다. 갯벌 체험을 통해 갯벌 생물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현민, 김진희 학생의 글과 그렇게 소중한 갯벌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현정화 학생의 글 역시 지식에 그치지 않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생활과 삶의 영역으로 확장한 글이어서 망설임 없이 수상작으로 뽑을 수 있었다. 갯벌에서 만난 꼬마 게에게 이름을 붙여준 강시은 학생의 글과 더불어 갯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동시에 표현한 서민석, 장서현, 현채령 어린이의 글도 인상적이었다. 환경과 갯벌의 소중함을 잘 표현한 이주아 학생의 동시와 우예설, 이시현 학생의 글, 그리고 의성어를 잘 활용해 재미있는 시를 쓴 문지우 학생의 동시도 좋은 글이었다.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깨달은 것을 글로 표현한 것처럼 갯벌은 버려진 땅이 아니다. 참가자들이 수없이 반복한 것처럼 갯벌은 우리 어머니이고 환경은 우리 삶의 근원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황폐해진 땅보다는 우리 후손에게 더 나은 땅,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녹색연합과 인천대교의 행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환경과 공존의 연대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